

보도 일시	2022. 12. 30.(금) 석간 온라인 12. 30.(금) 06:00	배포 일시	2022. 12.29.(목) 15:00
담당 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성철 (02-2100-6231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민 (02-2100-6232)

140만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있는 서울에서 드디어 청정동행을 시작합니다!

- 지난 10월 시작한 청정동행 어느덧 반환점으로 -
- 30일(금) 여성가족부-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(MOU) 체결 -

-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와 서울특별시교육청(교육감 조희연)은 30일(금) 서울 지역의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-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청정동행을 통해 △ 교육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활동경험 확대 △ 학교 내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응 등을 통한 위기 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와 함께,
- △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- 아홉 번째 청정동행을 함께하게 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온·오프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스카우트 서울연맹·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등 6개 청소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,
- ‘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’, ‘마을 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’, ‘청소년 단체 활동 공간 발굴’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,
- ‘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포럼’을 개최하여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활동방향을 모색하고, 교육청에 교육·청소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왔다.

□ 또한,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·자립지원을 위해 지난 '19년 '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'를 제정하고, '교육참여수당*'을 지급해오고 있으며,

* 만9세~18세 대상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,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,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교육비, 진로계발비 등 지원

○ '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검정고시 모의고사' 실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지원해왔다.

□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은 서울 관내 초·중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포함한 12개 청소년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고,

○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결정으로 학생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를 지원하여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오고 있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에서는 중앙정부-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청소년 활동,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특히, '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,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'이라는 비전 아래 내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'제7차 청소년기본계획'의 청소년 활동, 복지분야 주요내용*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청소년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, 촘촘한 청소년 지원망 강화 등

□ 한편,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「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」을 발표하고,

○ 동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남(10월), 부산·경남·전북(11월), 인천·세종·충북·대구(12월) 교육청과 함께 '청정동행'을 추진해오고 있다.

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주요내용

- 고교학점제 등 학교 교과과정에 활용 가능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적극 보급
-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·중학생과 마찬가지로 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센터)’로 자동 연계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
- ‘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가 학교와 연계해, 학교 내 자살·자해 등 위기상황 청소년 조기발견과 상담·지원의 중추(허브)기관으로 역할
- 여성가족부-각 시도 교육청 간 협약(MOU)으로 청소년 시설-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틀(신 패러다임) 구축

- 또한, 지난 11월 24일에는 「고위기 청소년지원 강화방안」을 마련하여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·청소년의 심리·정서적 문제 지원 및 자살·자해 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시도,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

고위기 청소년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

-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하고, 아동·가족 시설 청소년 대상 위기진단과 학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강화해 선제적 발굴
- 청소년상담1388에 24시간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하고, 비대면 상담채널(전화, 사이버, 모바일)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능 강화
- 청소년 자살·자해 특화 ‘고위기 집중 심리치료실(클리닉)’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, 임상심리사 배치와 정신과 전문의 등 자문단 구성·운영
- 은둔형 청소년, 사회·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극단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,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강화

-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서울에는 전체 840만여 명 청소년 인구 중 140만여 명*이 있는 만큼,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정책의 전국적 확산 측면에서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청정동행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.”라며,

* 2022 청소년 통계, 주민등록인구통계

- “아홉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으로 청정동행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하며, 내년에도 타 시도 교육청과 청정동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활동을 경험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[붙임] 여성가족부-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서



여성가족부-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서

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'양 기관')은 학교교육-청소년 정책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,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.

1. 교육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통해,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우리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.
2. 학교 내 위기 상황 발생 시,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 등을 위한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을 강화 한다.
3.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센터) 정보연계 확대 등을 통해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.

제3조(효력발생 및 변경·해지)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며,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에 의한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증명)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,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

2022년 12월 30일



여성가족부

장 관 김 현 숙

서명



서울특별시교육청

교 육 감 조 희 연

서명